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경(敬)을 위주로 하면 천리(天理)가 항상 보존되고 인욕(人欲)이 절로 끊어져 감응하기 전에는 보존된 것이 매우 고요하고 편안하며, 응하고 나서는 그 움직임이 이치를 따라 조화를 이루어 안으로는 마음에 누가 되지 않고 밖으로는 사물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은 편안해지며 호연하게 자득하여 지극한 즐거움이 있게 되니 어찌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의리의 본원으로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잘못으로 드러나므로 변석하지 않을 수 없다.

상구(上九) 망령됨이 없는데 나아가면 재앙이 있어 이로울 것이 없다[无妄行有眚, 无攸利(무망행유생, 무유리)].

내가 생각건대, 초구는 '망령됨이 없이 가면 길하다'고 하고 상구는 '망령됨이 없는데 나아가면 재앙이 있다'는 것은 초구는 무망의 시작이어서 시작부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도가 폐해져 회복하더라도 망령되기 때문이고, 상구는 무망의 지극함이어서 이미 지극한데 나아가면 그 도가 변하여 또한 망령되게 되기 때문이다. 구사는 초(初)와 응하는 자리이고, 초효로부터 넷째 효에 이르면 무망이 이미, 이루어져 오히려 굳게 지키는 것이 옳으니, 하물며 이미 지극한 경우에 었어서랴! 그러므로 그 망령됨이 없음을 굳게 지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대축(大畜)

'단전(彖傳)',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하며 빛나서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剛健篤實輝光, 日新其德(강건독실휘광)].

내가 생각건대, '강건하고 독실한' 덕이 내부에 온축되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건(乾)의 씩씩함에는 쉼 없는 정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간(艮)의 멈춤에는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으니 명덕(明德)을 밝혀 지선(至善)에 멈춘다는 것이다. 이미 그 덕을 밝혔다면 다시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하므로 그 밑에 "집에서 먹지하는 것이 멈춤에는 옮기지 멈춘다는 것이다. 그 밑에 "집에서 않으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간이 건의 위에 있어 나아가되 하늘 자리[天位]에서 멈추는 상도 있다. 하늘 자리에 거하여 하늘이 주는 녹을 먹으면서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므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몸에 크게 쌓는 것은 몸에 크게 것이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천하에 크게 쌓는 것이다.

상구(上九) 무엇이 하늘의 거리인가? 형통하다[何天之衢, 亨(하천지구, 형)].

'상전(象傳)', 무엇이 하늘의 거리인가?'는 도가 크게 실행된다는 것이다[' 何天之衢, 道大行也(하천지구, 도대행야)].

상구가 간(艮)의 체(體)로서 축(畜)의 상황에 있으므로 멈추고 행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으로서 건위에 있고 축의 상황이 이미 극에 이르러, 도가 같고 덕이 합치하여 그 성질이 위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현명한 덕을 갖춘 이가 천자의 자리에 거하니 위아래가 뜻을 같이 하여 그 도가 크게 실행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집에서 먹지 않고' '천하에 명덕에 밝히것'이니 백성을 새롭게 함이 지선(至善)에 멈추는 것이다.

상구는 지위가 없는 자리인데 하늘의 자리에 거한다고 본 것은 강(剛)이 위로 올라 현자를 숭상하는 상(象)이 있기 때문이니 역(易)의 도는 때에 따라 의미를 취한다.

오징은 '하(何)'자를 '형틀을 썼다[何校]'의 '하'라고 생각하여 '시경'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으셨다[何天之休]", "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다[何天之龍]"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인용한 것들이 분명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은총'은 짊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늘의 거리'는 짊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이다. 간에 있으므로 마땅히 그쳐야 할듯한데 거침없이 통달하고 도가 크게 행해지므로 의심한 것이다. 혹자는 '하(何)'자가 쓸데없는 글자라 여겼으나 역시 잘못이다.

이(頤)

'단전(彖傳)', '기름을 본다'는 것은 그가 기를 대상을 본다는 것이다.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를 것을 본다는 것이다.

'정전'에서는 '소양(所養)'을 '다른 사람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자양(自養)'을 '자신 기르는 것'으로 보았다. 주자는 기르는 도리와 자신을 기르는 방법으로 나누어 말하였다. 이는 기르는 것에 크고 작은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자신을 기르는 것이다.

나는 '단전'에서 '소(所)'와 '자(自)'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석씨가 소(所)와 능(能)을 대립적으로 보아 타인과 자신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랫 문장에서 기르는 도의 위대함을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오로지물을 기르고 타인을 기르는 것만을 언급하였으니 윗 문장도 반드시 타인과자기를 아울러 말해야 한다.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입과 몸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덕을 기르고 도를 기르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된다. 성탕(成湯)이 이른바 '나를 구실로 삼는다[台爲口實]'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덕을 기르고자 한 것과 같다. 이에 관해서는 정설(程)을 따라야만 하므로 주자도 뒷날 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설이 나은 듯하다'고 하였으니 의론(議論)이 이미 결정되었다. 다만 '정전'에는 덕을 기른다는 의미가 부족한 듯하므로 '본의'에서는 아울러 말했을 뿐이다. 두 설을 합하여'이위구실'에 덕을 기른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면 뜻이 완비된다. 그러나 문왕의 괘사는 본래 스스로를 기르는 것을 위주로 말하고 있다. 이른바 '기름을 보고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괘에는 턱과 입의 상이 있고, 가운데가 팅 비었으므로 반드시 채운 뒤에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로 '턱의 상을 보고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두 가지 일이 아니다. 공자의 '단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인과 자신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건의 원·형·리·정을 네 가지 덕으로 나눈 것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5)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而)

제2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내가 성인을 만나 볼 수 없으니 군자다운 인물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만해도 괜찮겠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사람도 내가 만나볼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자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만해도 괜찮겠다. 없는데도 있는체하고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찬 체하고 작으면서도 커다란체하는 세상이니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도 어려울 것이다."

[원문]

子曰 聖人을 吾不得而見之矣어든 得見君子者면 斯可矣러라 子曰 善人을 吾不得而見之矣어든 得見有恒者면 斯可矣러라 亡而爲有하여 虛而爲盈하며 約而爲泰니 難乎有恒矣니라.[자왈 서인을 오불득이견지의어든 득견군자자면 사가의러라 자왈 서인을 오불득이견지의어든 득견유항자면 사가의러라 망이위유하여 허이위영하며 약이위태니 난호유항의니라.]

[이해]

있는체하고 가득 찬 체하고 커다란 체하는 부류는 모두 허망하고 과장된 사람들이다. 한결 같으려면 우둔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지만 견실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점이 차라리 성[聖]에 가까울 터이므로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런대로 만족 하겠다는 공자의 생각이다.

제26장

공자[孔子]는 낚시질을 하였지만 그물로는 고기를 잡지 않았고. 화살로 잠자고 있는 새를 잡지 않았다.

[원문]

子는 釣而不網하시며 弋不射宿이러시다.[자는 조이불망하시며 익불사숙이러시다.]

[이해]

미끼를 무는 고기를 낚는 것은 그물을 펼쳐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 잡아 번식을 위협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고 잠들어 있어 근본적으로 위해[危害]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공격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잔학[殘虐]에 가깝다. 공자는 그렇게 몰인정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제27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더러 이치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한일이 없다. 만이 들어서 그 좋은 점을 따르고 많이 보아서 지식이 높아지는 것은 저절로 깨우쳐 알고 있는 것에 다음가는 방법이다.

[원문]

子曰 蓋有不知而作之者나 我無是也러라 多聞하여 擇其善者而從之하며 多見而識之하니 知之次也니라.[자왈 개유불지이작지자나 아무시야러라 다문하여 택기선자이종지하며 다견이식지하니 지지차야니라.]

[이해]

확고한 자아[自我] 나름의 신념이 있다 해도 독단과 편견은 정당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경계이다.

제28장

호향[互鄕]에 사는 더불어 말하기 어려운 어린아이가 공자[孔子]를 만나러오자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그가 나올 때는 받아주고 그가 물러날 때에는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찌하여 심하게 굴 것인가. 사람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나오면 그 깨끗함을 받아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의 지나간 과거가 옳았다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원문]

互鄕은 難與言이러니 童子見커늘 門人惑하되 子曰 與其進也요 不與其退也니 唯何甚이리오 人이 潔己以進이거든 與其潔也요 不保其往也니라.[호향은 난여언이러니 동자견커늘 문인혹하되 자왈 여기진야요 불여기퇴야니 유하심이리오 인이 결기이진이거든 여기결야요 불보기왕야니라]

[이해]

대범[大凡] 관후[寬厚]한 공자[孔子]의풍도가 돋보인다. 호향[互鄕]은 아마 공자가 외유할 때 경과한 지방일 것이나 어딘지 확실치 않고 전국책에는 일곱 살짜리 항탁[項橐]이 공자를 답변이 궁해서 쩔쩔매게 만들어 스승이 되었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이 대목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그 아이였는지 다른 아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제29장

공자가 말하였다. "인자함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자하려고만 한다면 인자함은 곧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원문]

子曰 仁乎遠哉아 我欲仁이면 斯仁이至矣니라.[자 왈인호원재아 아욕인이면 사인이 지의니라.]

[이해]

인자함은 그 덕이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가운데 마땅히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만 인자하게 먹으면 거기에 즉시 인자함의 싹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65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7〉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 뒤 의병부대를 많은 소단위의 의병부대로 편성하고,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제천·죽산·장호원·여주·홍천 등지에서 유격전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강원도·충청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한 허준(許俊)·이경삼(李京三)·김만군(金萬軍)·고석이(高石伊)·김군필(金君必)·이한창(李韓昌)·한기석(韓基錫)·한갑복(韓甲復)·윤기영(尹起榮)·이강년(李康秊)·변학기(邊鶴基)·조인환(曺仁煥)의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강년의 부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제는 3개 소대를 파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7년 8월 12일 약 200명으로 편성된 부대로 여주를 기습하여 경무분견소를 포위, 공격한 뒤 이곳 일본경찰과 가족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접수하였다. 이때 많은 지방민이 의병부대로 지원해 와 그 수가 수 천 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여주·이천·양근 일대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8월 중순 이강년과 같이 충주공략의 작전계획을 세운 뒤 22일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23일 충주를 공격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장호원으로 후퇴하였다.

그 뒤 이천 북방과 산지동(山地洞)에서도 격전을 벌였다. 9월 17일 약 600명을 2개 부대로 나누어 홍천을 습격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9월 10일 약 200명의 의병이 재차 홍천을 기습하였다. 또한, 나머지 400명의 의병은 낭천군아(狼川郡衙)를 기습 공격, 총기와 탄약을 접수하였다. 20일 춘천 남방의 정족(鼎足)부근에서 약 300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고, 23일 횡성군 봉복사(鳳服寺)에서 약 350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 뒤 10월 26일 횡성 둔촌(屯村)에서, 11월 27일 홍천 서남 양덕원(陽德院)에서, 12월 8일 원주 동북 작곡(鵲谷)에서 계속 격전을 벌여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1908년 2월 29일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의병 20여명이 사살되고, 그는 사로잡혀 강릉으로 호송되었다. 그날 밤 부하 60여 명이 강릉을 습격하여 탈출하다가 사살되었다. 민긍호 의병장이 거느린 의병부대는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세력이 큰 의병부대로 강원도·경기도·충청도·경상도로 전전하면서 모두 100여 회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구한말 의병장 민긍호「충혼탑기」를 지은 이러한 모습은 권준 장군의 덕장(德將)의 풍모와 전장(戰場)에서는 용장(勇將)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장(智將)으로서의 영걸(英傑)한 풍도를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제 때 애국지사(광복회)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풍찬노숙과 의열단, 중국군, 광복군, 임정부 요인(중경, 내무부 차장), 해방 후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건군(建軍)의 원훈(元勳)으로서 1948년(단기4281년) 초판 다음해인 1949년 재판으로 저서인 '전략(戰略)과 전술(戰術)'(233쪽)을 비롯하여, '소련야전참모업무령(蘇聯野戰參謀業務令)'(314쪽), '유격전강요(遊擊戰綱要)'(276쪽), '현대각국정당론(現代各國政黨論)'(252쪽), '민주정치개론(民主政治概論)'(64쪽) 등을 편찬하였다.

특히 제1훈련소 소장으로 근무할 때 의논문인「고구려 명장 연개소문을 소개함」(제1훈련소 소장 육군준장 권준)이란 육필 원고(국한문 혼용으로 달필-한문은 行·草書, 국문은 현재 맞춤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한문은 한글로 옮기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일(一). 연개소문의 출생과 중국을 유람

연개소문은 고구려 서부 세족인 연태조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용모가 비범하여 미목이 청수하고 의지가 호일(豪逸)하여 지재가 초월한 사람으로 자타날사톡(?) 도량이 크고 지개가 원대하여 일대영걸의 풍도가 나날이 원근에 전파되므로 서부인사들의 교애(敎愛)와 칭찬이 자자하더니, 하루는 우연히 출렵(出獵)하다가 도덕이 고상하고 지략이 겸비한 선생을 만나 세사(世事)를 담론하다가 서로 의사가 맞아서 그 선생을 따라 교년(敎年)동안 공부한 결과 경세안민(經世安民)의 재주와 용병(用兵)하는 법을 배웠다.

이에 중국인의 고구려침략에 원한이 깊은 연개소문은 중국에 대한 보복적 행동을 취하려면 반드시 피피지기(知彼知己)이라야 백전백승(百戰百勝) 할 수 있다고 결심한 후, 중국의 국정을 탐지하기 위해서 친히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잠입하여 각지를 돌아 단이면서 그 국정을 細探하다가 마침 太原(山西省)에 이르러 미래의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부하명장 이청(李淸)과 막역지교를 사괴고 그의 처 홍불지(紅拂枝)와는 남매의 의를 맺고 동시에 자기가 평생 배왓든 경제경륜의 재주와 용병하는 방법을 이청에게 가라치고 후에 다시 자기의 大敵인 당태종의 부하가 되어서 그 나라의 내정과 군사기밀을 탐사하든 중 비밀이 脫露(탈로)되여 入獄受苦(입옥수고) 하다가 마참내 당고조 이연(李淵이세민의 父)의 공주(公主)에 힘을 입어 탈옥귀국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解說 (立敎篇)

● 武王이 曰(무왕이 왈) 何謂十盜(하위십도)닛고 太公이 曰(태공이 왈) 時熟不收이 爲一盜(시숙불수이 위일도)요 收積不了爲二盜(수적불료위이도)요 無事燃燈寢睡이 爲三盜(무사연등침수이 위삼도)요 慵懶不耕이 爲四盜(용나불경이 위사도)요 不施功力이 爲五盜(불시공력이 위오도)요 專行巧害이 爲六盜(전행교해이 위육도)요 養女太多이 爲七盜(양녀태다이 위칠도)요 晝眠懶起이 爲八盜(주면나기이 위팔도)요 貪酒嗜慾이 爲九盜(탐주기욕이 위구도)요 强行嫉妬이 爲十盜(강행질투이 위십도)니라.

해설: 무왕이 묻기를, "무엇을 십도(十盜)라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은 것을 제때에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盜)이요, 거두고 쌓는 것을 다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세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넷째의 도둑이요,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좋아하고 환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심히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고 하셨다.

참고: 시숙(時熟)⇒제 철에 익는 것, 時→때 시, 熟→익을 숙, 불료(不了)⇒끝내지 않는 것, 收→걷을 수, 積→쌓을 적, 了→마칠 료(요), 연등(燃燈)⇒등불을 켜는 것, 燃→불사를 연, 燈→등 등, 침수(寢睡)⇒잠자는 것, 寢→잘 침, 쉴 침, 睡→졸음 수, 용라(慵懶)⇒게으른 것, 慵→게으를 용, 懶→게으를 라(나), 盜→도둑 도, 耕→밭갈 경, 전행(專行)⇒전문적으로 행하는 것, 專→오로지 전, 晝→낮 주, 기욕(嗜慾)⇒즐기고 욕심내는 것, 환락을 즐김, 嗜→즐길 기, 慾→욕심낼 욕, 교해(巧害)⇒교활하고 해로운 일, 巧→교활할 교, 간사할 교, 주면(晝眠)⇒낮 잠, 晝→낮 주, 眠→잠잘 면, 나기(懶起)⇒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 질투(嫉妬)⇒미워하고 시기 하는 것, 嫉→미워할 질, 妬→샘낼 투, 시기할 투, 탐주(貪酒)⇒술을 탐하는 것, 貪→탐할 탐.

● 武王이 曰(무왕이 왈) 家無十盜而不富者(가무십도이불부자)는 何如(하여)닛고 太公이 曰(태공이 왈) 人家에 必有三耗(인가에 필유삼모)니다. 武王이 曰(무왕이 왈) 何名三耗(하명삼모)닛고 太公이 曰(태공이 왈) 倉庫漏濫不蓋(창고누람불개)하여 鼠雀亂食(서작난식)이 爲一耗(위일모)요 收種失時(수종실시)이 爲二耗(위이모)요 拋撒米穀穢賤(포살미곡예천)이 爲三耗(위삼모)니다.

해설: 무왕이 묻기를 "집에 십도가 없고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삼모(三耗)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삼모라고 합니까?"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가리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 첫째의 모(耗)요, 거두고 씨 뿌림에 때를 놓지는 것이 둘째의 모요, 곡식을 퍼 흘리어 더럽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셋째 모입니다."고 하셨다.

참고: 삼모(三耗)⇒세가지 소모하는 것, 耗→소모할 모, 倉→곳집 창, 庫→곳집 고, 누람(漏濫)⇒물이 새어 넘치는 것, 쥐구멍이 뚫린 것, 漏→샐 누(루), 濫→넘칠 람(남), 불개(不蓋)⇒덮지 않는것, 蓋→덮을 개, 서작(鼠雀)⇒쥐와 참새, 鼠→쥐 서, 雀→참새 작, 난식(亂食)⇒어지럽게 먹어대는 것, 亂→어지러울 란(난), 수종(收種)⇒거두고 씨 뿌리는 것, 收→거둘 수, 種→씨 종, 심을 종, 실시(失時)⇒때를 놓치는 것, 포살(拋撒)⇒퍼 흘리는 것, 拋→던질 포, 버릴 포, 撒→뿌릴 살, 예천(穢賤)⇒더럽고 천하게 다룸, 穢→더러울 예, 賤→천할 천.

● 武王이 曰(무왕이 왈) 家無三耗而不富者(가무삼모이불부자)는 何如(하여)닛고 太公이 曰(태공이 왈) 人家(인가)에 必有 一錯(필유 일착) 二誤(이오) 三痴(삼치) 四失(사실) 五逆(오역) 六不祥(육불상) 七奴(칠노) 八賤(팔천) 九愚(구우) 十强(십강)하여 自招其禍(자초기화)요 非天降殃(비천강앙)이니다. 고 하셨다.

해설: 무왕이 묻기를, "집에 삼모(三耗)도 없는데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하여 그러하나이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일착(一錯) 이오(二誤) 삼치(三痴), 사실(四失), 오역(五逆), 육불상(六不祥), 칠노(七奴), 팔천(八賤), 구우(九愚), 십강(十强)이 있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 하셨다.

● 武王이 曰(무왕이 왈) 願悉聞之(원실문지)하나이다. 太公이 曰(태공이 왈) 養男不敎訓(양남불교훈)이 爲一錯(위일착)이요 嬰孩不訓(영해불훈)이 爲二誤(위이오)요 初迎新婦不行嚴訓(초영신부불행엄훈)이 爲三痴(위삼치)요 未語先笑(미어선소) 爲四失(위사실)이요 不養父母(부양부모)이 爲五逆(위오역)이요 夜起赤身(야기적신)이 爲六不祥(위육불상)이요 好挽他弓(호만타궁)이 爲七奴(위칠노)요 愛騎他馬(애기타마)이 爲八賤(위팔천)이요 喫他酒勸他人(끽타주권타인)이 爲九愚(위구우)요 喫他飯命朋友(끽타반명붕우)이 爲十强(위십강)이니다. 武王이 曰 (무왕이 왈) 甚美誠哉(심미성재)라 是言也(시언야)이여

해설: 무왕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키우며 가르치지 않음이 첫째의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그릇됨이요, 처음 신부를 맞이하여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넷째의 과실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스럽지 못함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상스러움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주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아아! 심히 아름답고 성실하도다. 그 말씀이여." 라고 하셨다.

참고: 원실문지(願悉聞之)⇒다 듣기를 원한다, 願→원할 원, 悉→다 실, 양남(養男)⇒아들을 기르는 것, 養→기를 양, 錯→어긋날 착, 영해(嬰孩)⇒어린 아이, 젖먹이 어린 아이를 말함, 嬰→어릴 영, 孩→어릴 해, 誤→그르칠 오, 迎→맞을 영, 嚴→엄할 엄, 訓→가르칠 훈, 失→잃을 실, 痴→어리석을 치, 笑→웃음 소, 미어선소(未語先笑)⇒말을 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 적신(赤身)⇒벌거벗은 몸, 불상(不祥)⇒상서롭지 못한 것, 祥→상서로울 상, 호만(好挽)⇒당기기를 좋아한다. 挽→당길 만, 타궁(他弓)⇒남의 활, 奴→종 노, 상스러울 노, 비천한 신분, 애기(愛騎)⇒말 타기를 좋아함, 騎→말 탈 기, 끽타주(喫他酒)⇒남의 술을 마시는 것,(먹는 것), 喫→먹을 끽, 권타인(勸他人)⇒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勸→권할 권, 誠→정성 성, 賤→천할 천, 飯→밥 반, 强→강할 강, 뻔뻔함도 표시됨.